

해양수산부 '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' 마련 - 원양어업을 해양 핵심산업으로 육성 -

원양어업을 21세기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.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원양어업은 민간주도로 90년대 초반까지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으나,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등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민간주도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”면서 “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20%를 차지하는 원양어업의 회생을 위해 ‘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’ 을 마련했다”고 밝혔다.

김장관은 이를 위해 “2013년까지 총 2,655억원을 투입해 ‘원양어업의 지속적인 생산기반’ 을 구축하고, 단순한 어업에서 양식, 가공, 유통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‘원양어업을 원양산업’ 으로 육성·발전시킬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정부는 우선 자본금 1억미만, 보유척수 1~2척의 영세업체가 70%를 차지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·지역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‘관리회사 제도’ 를 도입할 계획이다. 관리회사제도를 통해 선사는 생산을, 관리회사는 수집·판매·관리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으로 생산량조절 및 가격조절 기능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.

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원양 생산규모를 50만톤 수준으로 유지하고, 세계 10위권의 원양 산업력을 보유하는 21세기 해양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.



〈 참치조업 모습 〉

